

여수서 실크로드 문명·역사 되새긴다

30개국 70개도시 시장단 포럼...21~ 24일까지 엑스포해양공원

해양 실크로드 국가 도시들의 문화와 경제의 교류, 그리고 세계박람회 정진계승을 위한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일원에서 막을 연다.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30개국 70개 도시 시장단과 세계시민기구(WC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경제기술 교류 중국국제센터(CICETE), 주 일본 스웨덴대사, 유엔기구, 각계 전문

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지구촌 문명과 새로운 실크로드의 조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하나의 세계속에서 세계화·지방화 삶의 모습들'라는 부제를 놓고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서 여수는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과 교류의 역사를 되새기고, 여수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해상 실크로드의 전환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포럼은 3개 세션(회의)으로 구성됐다. 세션 I은 '실크로드 정진 함양을 위한 시민 참여와 민관협력 전략'을 주제로 후브너 보이책 마렉 WCO사무총장이, 세션 II는 '실크로드 문화유산 보존과 교육적 관광산업 개발'을 주제로 왕 만 풍 피터 중국 홍콩 실크로드호텔회장이 각각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세션 III는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세계 기반시설 개발'을 주제로 실크로드 지구촌 연합회장인 야마모토

노리오 박사가 좌장이다.

여수시는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로 검증된 여수시 국제대회 유치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신 성장 동력인 마이스(MICE)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터키 자안렘에서 헝가리 헤비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중국 르자오, 중국 우루무치, 팔레스타인 가자, 러시아 벨고트, 터키 앙카라, 대한민국 여수시 등 세계 8개 도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을 유치한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지난 12일 여수시는 시보건소에서 49개 섬 지역 주민 55세 이상, 배뇨장애를 호소하는 남성 800여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주최로 마련된 진료는 협회 임원진과 자원봉사자 135명이 참가해 어르신들의 진료를 도왔다. (여수시 제공)

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여수산단으로 이전 요구

약취 발생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여수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여수국가산단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여수시와 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모임인 화양농공단지협의회가 여수시와 전남도의회 환경특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을 여수국가산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공장 가동과정에서 일부 업체에서 약취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차체에 입주업체들이 여수산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공장 가동과정에서 일부 업체에서 약취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차체에 입주업체들이 여수산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맛과 흥에 취했다

수만명 찾아 성황리 폐막

남도음식의 진수를 보여준 제20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1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순천 낙안읍성에서 열린 음식문화큰잔치는 시군 특산품으로 조리된 진설음식으로 상달제를 지내고 올해 처음으로 남도음식 명인 7명을 지정, 지정서를 수여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음식전시관 규모를 350m에서 800m로 크게 늘렸다.

주제관, 시군 대표 음식관, 남도음식 명인관 등 3개 전시관을 만들어 개막 첫날인 11일부터 3일간 수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고등부를 새로 추가한 음식 경연대회에선 일반부 17팀, 고등부 10팀, 대학부 10팀 총 37팀과 22개 시·군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올해는 또 시군 전시 음식 중 시식



전남 22개 시군의 대표 음식관 앞에 길게 늘어선 인파 모습.

이 가능한 13개 음식을 선정해 전시 음식 시식코너에서 관광객에게 남도 최고의 음식 맛을 볼 수 있게 했다.

시군 음식 판매장터에선 소액, 소량 판매업소 10곳을 지정해 관광객들이 남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김영옥(여·45) 씨는 "남도의 후덕한 인삼과 함께 맛갈스러

운 남도음식을 맛보고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을 햇빛 속에서 길게 늘어선 줄의 길이만큼이나 남도음식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음식전시관을 재료별, 시군별로 다채롭게 구성하고 관광객들이 직접 남도음식을 맛볼 기회를 제공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전립선 무료 진료

고흥군 김 양식 전략산업으로 육성

채모 단지 조성 등 올 생산·가공분야에 65억원 투입

고흥군이 올해 김 양식 생산·가공 유통 분야에 총 65억원의 예산을 투입, 김 양식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군은 13일 "고흥김 명품화를 위해 수산물지리적 표시제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김의날 행사 개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가공장 이물질 선별기, 김 활성 처리제 등 김 양식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가공유통 및 현대화 시설, 김 건조장 고속설단기,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또 '종합 육상채모 단지'를 조성, 겨울철 명품 수산물인 김 양식을 위한 채모를 지난 2008년부터 실시, 올해는 김 육상채모시설 3개소에서 고흥군 전체 김 채모량 6만6000톤의 75%인 5만톤의 채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채모는 김 포자를 양식시설인 망에 붙이는 작업으로, 고흥군은 김 육상채모를 통해 우량종묘를 확보, 고품질 김 생산체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u@kwangju.co.kr

구례군-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연구 활성화 등 기술 제휴

구례군이 전남한방산업진흥원장과 기술제휴 및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군은 13일 "지난 10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양기관이 협약식을 갖고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 지원 활성화와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 제품개발, 개발품 홍보마케팅 지원, 천연유전자원 자료 구축, 유전자원 활용 식품·의약품 개발 및 표준화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군은 전문기술 인프라 구축과 최신기술을 이용한 집중 연구가 가능해져 고소득 품목 육성,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천연자원 활용 제품개발 및 상품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전북

전주말효식품엑스포 '감사 사각'

국비·지방비 등 97억 지출 11년동안 감사대상서 제외 예산 집행 등 투명성 우려

올해로 11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발효식품엑스포(발효엑스포)에 대한 정식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방만 운영이 우려된다.

1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작된 전주발효식품엑스포는 행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간 국비 15억원, 지방비 82억원 등 총 97억 원의 지출했다.

여기에도 민자까지 합치면 지출 비용은 148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행사인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각

종 계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발효엑스포는 소관 부서의 자체 정산 감사만을 받을 뿐 전북도 감사관실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출연기관과 공기업, 법인단체, 민간위탁기관 등 총 23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들 피감기관에 발효엑스포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은 "실제로 2009년 이후 자체감사 내역을 봐도 소소한 지적사항 이외에는 이렇다 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단신



전주서 재현된 태조 어진 봉안행렬 전주 태조 어진 봉안행렬 재현행사가 지난 12일 전주시청 노승광장과 팔달로, 경기전,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졌다. /연합뉴스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최첨단 시설 갖춰 17일 개원

호흡기질환을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다.

전북대병원은 호흡기전문질환센터는 13일 "오는 17일 개원식과 함께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4월 착공한 호흡기전문질환센터는 총예산 45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2천297㎡에 182병상을 갖췄다.

센터에는 진료실과 폐 기능 검사실, 기관지 내시경실, CT실, 호흡재활치료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진료부처 검사, 입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센터 인근 건치산에 '사람의 녹색나눔숲'을 조성해 8종 3890그루의 수목과 레몬밤 등 허브수종 3종 3330그루를 조성했다.

센터는 앞으로 천식을 비롯한 난치성 호흡기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와 진료, 연구, 공공보건교육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순창 전원마을 도시민 유치 역할 특출

강천산·금산 등 2개소 95세대 분양 완료 군 280여명 도시민 유입 효과 기대

순창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도시민 유치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군은 13일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증대 및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금과면 아미산, 팔덕면 강천산 일원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과전원마을 75세대, 강천산전원마을 20세대 규모로, 모두 2개소 95세

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됐다. 전원마을 조성이 완료되면 금과전원마을은 220여명, 강천산전원마을은 60여명 등 총 280여명의 도시민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금과전원마을은 기반시설 공사분야 전체 공정의 85%가 진행 중이며, 강천산전원마을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주택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민

전주시 삼천·효자동 등 5개동 주민 '세내축제'

전주시 세내전통문화축제제전위원회와 삼천문화의집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삼천동 세내교 인근 전통놀이마당에서 '세내축제'를 개최했다.

세내가에 수백년 이어져온 '함곳'을, 우리 손으로 전승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세내축제는 현재는 전주시 5개 동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다. 함곳이 성행하던 구 우림면 지역은 현재의 삼천·효자동 지역이며, 난전면 지역은 평화동이다. 이번 세내축제에는 주민센터별 마당밧기, 합동놀이, 설다리개통제, 전주함곳 재현, 시립국악단 초청공연,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시기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정읍경제 살릴 해법은 있는가?'란 주제로 시기동주민자치위원회 제10주년기념 도란도란 경제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대담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창호 위원장과 정읍신문사 김태룡

남원시 주생면, 환경정비사업 이달내 마무리

남원시 주생면은 13일 "지난 2011년 시작된 소재지권 환경정비사업이 면 청사 광장정비사업을 끝으로 3년 만인 이달 내 준공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면 청사 리모델링 및 광장 정비공사(5억원), 문화회관 신축(6억원), 치안센터 신축 이전(3억원), 백일홍 꽃길 조성(2억원) 등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주생면 제천리 일대에 딸린원예브랜드 육성사업(95억원)이 지난 2011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고 있는 등 주생면의 생활 및 경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사료작물재배단지 제공 농가에 임차료 지원

순창군은 13일 "겨울철 유휴지인 논을 사료작물 재배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료 재배에 필요한 농지를 제공한 농가에 임차료를 지원해줘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논에 2모작 작부체계인 호밀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호밀 수확기가 다소 늦어 버

적기 이양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사료작물 재배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됐다. 순창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계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사업을 펼쳐 올해 500ha(150만 평)에 1억5000만원의 겨울철 유휴농지 임차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정읍 시기동 자치위 10주년 기념 '도란도란 경제 특강'

정읍시 시기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정읍경제 살릴 해법은 있는가?'란 주제로 시기동주민자치위원회 제10주년기념 도란도란 경제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대담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창호 위원장과 정읍신문사 김태룡